

# 역사의 종말

노윤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며 사상가인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공산주의의 붕괴가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20세기의 악몽으로 지난 한 세기를 이어온 동서 냉전의 종식이 과연 후쿠야마가 선언했던 것처럼 역사의 종말을 의미할까? 아니면 현실에 존재했던 공산주의가 인류에 끼친 이미지의 부담에서 마침내 자유를 찾은 민주주의 기획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까?

엄밀히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가 자체적인 성취라 하기보다는 적의 붕괴에 더 많은 원인이 내재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붕괴가 일어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활력을 찾아볼 수 없고 삶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위협한 적신호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파의 등장과 재기를 노리는 극좌파와 근본주의의 부활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움트고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이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는 대중에게는 극히 불만족스럽기만 한 것이다.

##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이탈리아의 법철학자이며 자유주의 사상가인 보비오(Norberto Bobbio)는 『민주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Democracy)』라는 그의 저서에서 공산주의의 위기는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실제로 도전적 입장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의 패배 이후 빈곤이 종식되고 정의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환상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

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보비오는 1989년 한 기고문에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의 전투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도전이 되었던 문제들과 대결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어떤 이상과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는데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이 물음에 대한 본질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은 단순히 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대의제가 인민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위임받는 것이 정치 활동을 실천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전제정치(Caesarism)도 대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제도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편리성을 우선하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회제도의 본질은 ‘논증과 반대 논증에 대한 공적 심의와 토론, 협상’을 의미하며 이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동일성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대의제적 요소는 의회 민주주의의 비민주적 측면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의회 민주주의 결함이 지적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원칙에 대한 정교한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민주주의 특성과 다원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는 밀(John Stuart Mill)이 『자유에 대하여(On Liberty)』에서 주장한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유란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표와 시도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원주의란 바로 ‘자유주의적’이란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을 뜻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런던대학 사회과학부(LSE)의 정치학 교수였던 라스키(Harold Laski)와 콜(George D. Cole)은 모두 20세기 정치학계를 선도한 영국의 정치학자로 이들은 민주주의의 요체가 다원주의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각 개인은 다양한 공동체와 결사체의 한 구성원이며 어느 것도 이보다 우선성을 지닐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를 종교 사회나 전문 집단들과 동일한 유형의 결사체로 이해하며 개인에게는 국가에 대한 우선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참여가 다른

자유란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표와 시도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원주의란 바로 ‘자유주의적’이란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을 뜻한다.

정계를 은퇴한 후 환경 운동가로 변신한 전 미국 부통령 고어(A1 Gore)는 최근 ‘화석 연료 사용의 종말’을 선언하고 나섰다.

10년 내에 화석 연료 의존을 탈피하지는 고어의 제안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1961년 ‘달 정복’을 10년 내에 이루겠다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굳은 신념이 현실화 되었다면서 정부와 에너지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미국 시민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다원주의 민주주의 실천만이 공산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듯이 화석 연료 사용의 종말이 지구 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형태의 사회 통합과 같은 수준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대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처럼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구성하는 일정한 가치들에 대한 긍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는 공과 사의 구별, 교회와 국가의 분리, 시민법과 종교법의 분리를 요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에 근거해 다원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다원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공산주의의 붕괴는 역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역사의 종말』이란 선언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 화석 연료 사용의 종말이 지구 온난화 방지 해결책

정계를 은퇴한 후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전 미국 부통령 고어(Al Gore)는 최근 ‘화석 연료 사용의 종말’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요한 내용은 향후 10년 내에 모든 화력 발전을 비화석 연료로 대체하고 모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혹평하고 있다. 오늘 현재, 미국은 전력 생산의 72% 이상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력, 바이오 등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3% 미만인 현실을 감안하면 고어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을 냉대해 온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하면서 환경 운동을 이끌어 온 고어가 이처럼 과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불성실성을 보임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온실 가스 배출의 절감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2020년경 지구촌의 재앙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경고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내에 화석 연료 의존을 탈피하지는 고어의 제안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1961년 ‘달 정복’을 10년 내에 이루겠다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굳은 신념이 현실화 되었다면서 정부와 에너지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미국 시민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다원주의 민주주의 실천만이 공산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듯이 화석 연료 사용의 종말이 지구 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